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1, pp. 123-127, 2020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0.18.11.123

중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관련 변인 연구

권은경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A Study of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Burnou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Eun-Kyeong Kwon
Professor, Dept.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중학생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학생들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중학생의 학업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 학업관련 문제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중학생들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있어 환경변인인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개인변인인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율성, 주의집중, 끈기, 우울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의집중, 교사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모관계, 우울, 행복감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열의는 환경변인보다 개인변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났고, 학업소진은 개인변인보다 환경변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업소진을 예방하고 학업열의를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학업열의, 학업소진, 중학생, 자아존중감, 끈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academic understand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problems by examining their impact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Burnout,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them in preparing various solution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388 middle school students to check the degree of influence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Burnout, environmental Variables (parent relationship, friend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and individual Variables (life satisfaction, happiness, Self-Esteem, autonomy, Attention focused, Grit, depress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388 middle school students,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Engagement were: attention concentration, teacher relationship, persistence, self-respect, life satisfaction, parent relationship, depression and happiness.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Burnout were depression, teacher relationships, friend relationships, parent relationships, persistence, self-respect, and attention. Since then, these findings have suggested directions and implications to prevent Academic Burnou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to them to Academic Engagement.

Key Words :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Grit

*Corresponding Author : Eun-Kyeong Kwon(cantatas@daum.net)
Received June 26, 2019 Revised July 26, 2019
Accepted November 20,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1. 서론

학업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은 아동기부터 학습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학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청소년들의 삶에 상당한 부담이나 압박으로 작용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관련된 여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 특히 중학교 진학은 상급학교 입시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초등학교와는 다른 학교운영방식과 학습방법의 변화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의 강도가 가중된다[2].

학교학업이나 과외 학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우울, 짜증, 긴장, 걱정, 부담감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나타낸다[3]. 이러한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불안이나 우울[4] 및 적대감과 대인예민성[5] 등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살[6]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단순한 긴장, 짜증, 우울, 걱정, 부담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상태를 넘어 공부로 인해 완전히 지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상태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7]. 이러한 학업소진 상태는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생이 속한 가족과 학교, 사회의 발달을 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8]. 따라서 학업소진을 예방하고 학업열의를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연구로는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남녀차이 연구, 완벽주의성향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정도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 밝히는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장면의 학생들의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고 학업열의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상황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권 소재의 중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업부담이 증가되는 3학년을 제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Sum
	Man	Woman	
Busan	87(23.4)	58(15.6)	145(39.0)
Ulsan	37(9.9)	31(4.0)	68(14.0)
GyeongNam	83(22.3)	92(24.7)	175(47.0)
Sum	207(55.6)	181(44.4)	388(100)

2.2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의 개념 및 측정

2.2.1 학업열의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열의(engagement)이다.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열정과 학업 자체에 대한 내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학업에 대해 집중하게 해주는 능력을 의미한다[7].

Schaufeli, Salanova, Gonvalez-Roma, Bakker(2002)는 열의의 구성요소를 활기 (vigor), 헌신(dedication), 몰두(absorption)로 구분하고, 3가지 영역에 총 17문항으로 구성된 열의척도(The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UWES)를 개발하였다[9]. 활기는 일을 하는 동안 나타내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로 정신적 회복력과 일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신은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에 대한 가치 등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몰입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일하는 동안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지각하고, 일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9]. 이 열의척도(UWES)를 바탕으로 이자영, 이상민(2012)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열의의 구성요소를 확인한 결과, 열의척도(UWES)의 3개요인 활기, 헌신, 몰입 외에 효능감 요인을 추가하여 4개 척도로 구성된 한국형 학업열의척도(KAEI)를 제작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활기, 헌신, 몰두, 효능감의 4개 하위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학업열의척도(KAEI)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학업열의를 측정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활기 .59, 헌신 .54, 몰

두 .74, 효능감 .74로 나타났다.

2.2.2 학업소진

소진은 의욕을 잃고 피곤함, 절망감, 탈진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적·신체적 고갈 상태이며[11], 특히 사람들과 집중해서 장기간 관계를 맺는 직업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력과 압박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정신적 피로 상태이다[12].

Maslach과 Jackson(1981)은 소진을 3가지 요소로 개념화하였다. 첫째는 정서적·정신적으로 과부하된 상태를 스스로 느끼고 자기의 일로 인해 지쳤다는 느낌을 갖는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둘째, 사람들에게 비인격으로 대하거나 냉담해지는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셋째는 자존감이 떨어져 스스로의 개인적인 성취에 부족함과 부적절함을 느끼는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이다. 이상의 3가지 요소를 수반하는 심리적 증후군으로 소진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개발하였다[13]. 이후 Schaufeli, Martez, Marques Pinto, Salanova Bakker(2002a)는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를 제작해 탈진(exhaustion), 냉소(cynicism), 효능감(efficacy)의 하위요인을 측정하였다[14].

이영복과 이자영, 이상민은 MBI-SS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징과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보완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에 대한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학업소진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기존 MBI-SS의 탈진, 냉담, 효능감 3요인에 '반감'과 '불안'의 요인이 추가된 5요인으로 학업소진척도(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를 개발하였다[15].

본 연구에서는 무능력, 불안, 반감, 탈진, 냉담의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학업소진척도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학업소진를 측정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무능력 .68, 반감 .54, 불안 .74, 탈진 .74, 냉담 .73으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 의해 처리되었다. 먼저, 설문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를 검토하였다. 중학생들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있어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율성, 주의집중, 끈기, 우울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2. ANOVA Table for Regression Models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regression	1183.239	8	147.905	164.28	.000
residual	2323.765	2581	0.900		
Sum	3507.004	2589			
R2(adj. R2)=.337(.335)					

중학생의 학업열의를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친구관계와 자율성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끈기, 교사관계, 주의집중,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우울, 행복감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164.28,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학업열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학업열의 총변화량의 33.7%(수정결정계수에 의하면 33.5%)가 모형에 포함된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cademic Engagement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715		-4.43	.000
Grit	.237	.170	8.45	.000
teacher relationship	.198	.189	10.63	.000
Attention focused	.196	.208	10.93	.000
satisfaction on life	.117	.113	5.19	.000
Self-Esteem	.111	.123	5.11	.000
parent relationship	.067	.073	3.93	.000
Depression	.063	.069	3.23	.001
happiness	.071	.045	2.19	.029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 대한 학업열의에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학

업열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끈기(t=8.45, p=.000), 교사관계(t=10.63, p=.000), 주의집중(t=10.93, p=.000), 삶의 만족도(t=5.19, p=.000), 자아존중감(t=5.11, p=.000), 부모관계(t=3.93, p=.000), 우울(t=3.23, p=.001), 행복감(t=2.19, p=.029)이며,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주의집중, 교사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모관계, 우울, 행복감 순으로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ANOVA Table for Regression Models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regression	1238.047	7	176.864	262.01	.000
residual	1742.909	2582	0.675		
Sum	2980.956	2589			
R2(adj. R2)=.415(.414)					

중학생의 학업소진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삶의만족도와 자율성, 행복감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끈기,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우울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262.01,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은 유의수준 .05에서 학업소진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학업소진 총변화량의 41.5%(수정결정계수에 의하면 41.4%)가 모형에 포함된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cademic Burnout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5.587		44.46	.000
Self-Esteem	-.188	-.225	-10.77	.000
Attention focused	-.254	-.293	-16.42	.000
Grit	-.158	-.123	-6.55	.000
parent relationship	-.074	-.087	-5.05	.000
Friendly relationship	-.061	-.070	-4.21	.000
teacher relationship	-.060	-.062	-3.69	.000
Depression	.060	.072	3.61	.000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 대한 학업소진에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학업소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t=-10.77, p=.000), 주의집중(t=-16.77, p=.000), 끈기(t=-6.55, p=.000), 부모관계(t=-5.05, p=.000), 친구관계(t=-4.21, p=.000), 교사관계(t=-3.69, p=.000), 우울(t=3.61, p=.000)이며,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우울,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순으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 변인인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율성, 주의집중, 끈기, 우울의 7가지 변인과 환경적 변인인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3가지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주의집중, 교사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모관계, 우울, 행복감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우울,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중학생의 학업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학습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변인 중 자율성과 환경적 변인 중 친구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주의집중, 교사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모관계, 우울, 행복감순으로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변인 중 삶의만족도와 자율성,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우울,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관계, 그릿,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순으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부적응 행동을 완화시키는 개인적 요인의 성숙한 발달과 부모나 교사의 적절한 환경요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대상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중학생 388명으로, 지역적 제한과 특수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중학생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리고 연구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장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업관련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문제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M. H. Hwang(2008). *Korean Students' Attributions o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Elementary Counselor Education Association,* 7(2), 117-129.

[2] .H. Oh, H. Y. Sun(2013). *The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Academic stres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3), 1981-1994.

[3] O. Choi & W. S. Lee(2014).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9), 455-463.

[4] G. T. Kim(2019).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Strategy Leve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6), 27-33.

[5] D. H. Kim(2018).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and Career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Value and Academic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1), 589-598.

[6] J. H. Ko, K. R. Yun(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 The Role of Ego-Resiliency as a Buffer,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18(1), 185-212.

[7] J. Y. Cho, M. S. Kim (2013). *Gender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 Women,* 18(4), 477-497.

[8] D. H. Kim(2011), *The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on the Relationship*, A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9] Schaufeli, W. B., Salanova, M., Gonvalez-Roma, V., & Bakker, A. B. (2002b).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confirmative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71-92.

[10] J. Y. Lee, S. M. Lee(201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 (KAEI), Journal of Education Method Research,* 24(1), 131-147.

[11] Freudenberger, H. J.(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cience*, 30, 159-165.

[12] E. K. Kwon(2018). *The effect of job stress on job exhaustion on Middle School teach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81-87.

[13] Maslach. C., & Jackson. E. S.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99-113.

[14] Schaufeli, W.B., Martinez, I.M., Marques Pinto, A., Salanova, M. and Bakker, A.B. (2002a),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Schaufeli

[15] Y. B. Lee, S. M. Lee, J. Y. Lee(2009). *Development of Korean Academic Burnout Scale, Journal of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5(3), 59-78.

권 은 경(Kwon Eun=Kyoung) [정회원]

· 2013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육심리, 상담
· E-Mail : cantatas@daum.net